

계육산업뉴스

Broiler industry



한국위생계육산업협회 (Korea Broiler Council)

발행인 : 김 홍 국 편 집 : 남두희, 김운호
(우137-044)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4동 52-6(남도빌딩 601호)

☎ (02)536-9855~6 FAX(02)595-6028

기획편집 : 민지미디어 ☎ (02)263-3598

제2권 제10호 통권16호

계육산업 발전을 위한 제언

2천원과 5백원의 가격차이 극복이 관건

금년도 생계시세가 2,000원까지 갈때가 있었다. 당시에는 고가의 시세가 길게 갈 것으로 생각했으나 9월에는 500원대의 생계시세가 형성되었다. 병아리 한 마리를 470원씩 주고 입추해서 41일간 정성껏 길러 다시 500원짜리 육계를 만들었으니 얼마나 기적의 닭인가?

이는 1996년의 육계산업의 단면을 극명하게 보여주기엔 충분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병아리 시세나 닭 시세가 같게 형성되었던 상황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첫째는 입식 과열로 인해 닭의 공급량이 수요량을 초과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겠고, 둘째는 닭고기 소비의 부진을 들 수 있다. 각종 언론매체에서 '죽은닭 파동'을 보도함으로써 닭고기 소비에 찬물을 끼얹은 격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소비시장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일부 양계산물에 안전성 문제가 대두되면 전체 양계산물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따라서 올바른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최근 대두되고 있는 식품에 대한 안전성 문제는 업계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97년부터는 닭고기 시장의 완전개방으로 외국의 유명한 제품과 한 매장 안에서 경쟁을 해야 한다.

따라서 자사의 브랜드를 구축하기 위해서나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서 종계, 부화, 사육, 도계, 유통에 이르기까지 생체검사 및 전문수의사의 동의를 생산자 단체가 자발적으로 실시하여 신용에 근거한 생계 공급과 철저한 규격 및 심사기준에 의한 제품을 생산하여 소비자의 불신을 씻어 나가야

할 것이다.

금년 육계 시장 환경에서 볼 때 아이러니 한 일은 '한국위생계육산업협회'가 발족되어 입체적인 교류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생계시세가 500원대에 형성되는 등의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각 업체간의 역할 분담과 충분한 교류를 통해 성수기·비수기의 물량을 조절, 계열화업체 및 생산자단체 중심의 자율 수매 비축·방출의 탄력적 운영, 생산성이 낮은 종계를 과감히 도태시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소비 촉진의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

올 3, 4월 계열화업체들이 정부로부터 2천원대 닭고기 가격이 물가상승이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던 것처럼 생계시세가 고가로 형성되었다.

그리고 8월에는 병아리 시세가 500원대에 형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병아리를 구하지 못한 농가들이 많았었다. 어떤 민심이 작용하여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다.

9월에는 500원대의 낮은 생계시세가 형성되어, 시세가 나쁘면 바로 뒤이어 호황이 올 것이라는 장미빛 환상의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져 버렸다.

이러한 시기에 사업장(종계장·도계장)을 배짱 확산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현실을 직시하고, 2천원과 5백원의 가격 차이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지 계육 산업 종사자 모두 지혜를 모아 양계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이다.